

각위

2021년 12월 15일
SBI 비즈니스솔루션즈 주식회사

청구서 및 영수증 데이터를 드래그&드롭으로 일괄 업로드 가능!
SBI비즈니스솔루션즈, 개정 전자장부보존법 대응
클라우드 경비정산 시스템 「경비Bank II」 업데이트
~경리담당자의 편리성향상을 추구, 법 개정 대응의 부담을 대폭 경감~

종합 핀테크 솔루션 기업인 SBI FinTech Solutions 주식회사의 자회사로 백오피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SBI비즈니스솔루션즈 주식회사(본사: 도쿄도 미나토구, 대표이사 사장: 나츠키와 마사키, 이하 「당사」)는 종업원 50명 이하 법인 경영인이 선택한 「추천하는 경비정산 시스템」 1위*1인 클라우드 경비정산 시스템 「경비Bank II」의 업데이트 버전을 2022년 1월 1일부터 제공합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경비Bank II」 이용 고객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장부보존법의 법령 요건인 '스캔자료 보존 요건 완화'와 '전자거래 데이터 전자보존 의무화'*2에 대응할 수 있으며 청구서와 영수증 데이터의 일괄 업로드 기능 등 경리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자장부보존법에 따라 업데이트된 기능은 추가비용의 발생 없이 표준기능으로 제공합니다.

*1 【조사 실시개요】 실시위탁업체: 일본 컨슈머 리서치 / 조사 기간: 2021년 7월 19일 ~ 7월 21일 / 조사 방법: 인터넷 조사 / 조사 개요: 경비정산 시스템을 취급하는 10개사를 대상으로 한 브랜드명 이미지 조사 / 조사 대상 : 종업원수 50명 이하의 법인 경영인 1,114명

*2 2021년 12월 10일 발표된 「2022년 세제개정 대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자거래 정보와 관련된 전자적 기록 보존제도」에 대해 경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연내에는 관련 성령(省令)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경비Bank II」는 개정 전자장부보존법에 표준 대응!



The infographic features a central laptop icon with the 経費Bank II logo above it. Four callout boxes surround the laptop, each detailing a specific feature:

- 검색 기능 확보** (Search Function Improvement): 거래일, 거래금액, 거래처를 조합 및 범위 지정하여 검색 가능.
- 버전 관리** (Version Management): 데이터 수정, 삭제 시 그 기록이 남는 시스템을 이용.
- 가독성 확보** (Readability Improvement): 스캔한 청구서나 영수증의 데이터 업로드 시 해상도 및 계조 정보 획득. 스마트폰 판독에 필요한 화소수 보존.
- 시스템 상호 관련성 확보** (System Interoperability Improvement): 분개 데이터에 해당 전표 No. 출력 가능. 스캔하여 전자 보존한 데이터에도 전표 정보를 기록하여 상호 확인 가능.

■ 이번 주요 업데이트에 대하여

▼ 청구서, 영수증 데이터를 드래그&드롭으로 일괄 업로드하는 기능 추가

복수의 청구서와 영수증 데이터를 일괄 업로드 후 시스템 내 명세정보 입력만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형태로 보존 저장이 가능합니다.

※ 「경비Bank II」는 외부의 제3자가 제공하는 시간정보(퍼블릭 NTP 서버)를 취득·기록하여 '인증 타임스탬프 부여'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법령 요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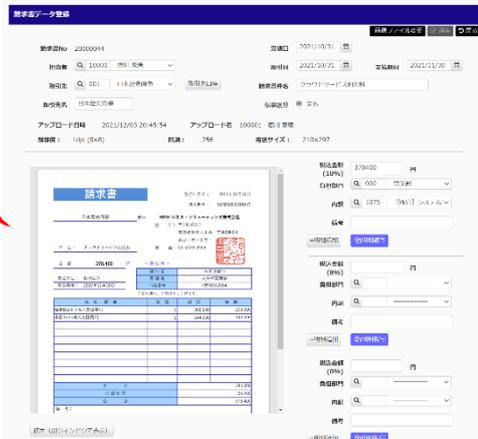
▼업로드 '대리설정' 기능 추가

청구서나 영수증은 수령인이 업로드하고, 명세 입력 및 신청은 경리에서 처리하는 등 대리권한 설정도 가능합니다. 경리의 실무 부담을 배려한 사양입니다.

< 일괄 업로드 이미지 >



< 청구서 데이터 업로드 완료 후 이미지 >



■ 요금 안내

당사는 모든 고객에게 이번 업데이트 내용을 포함한 개정 전자장부보존법의 법령 요건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추가비용 없이 표준기능으로 제공합니다.

「경비Bank II」 시스템 이용료 (세금 별도)

- 초기비용 : 0
- 월 이용료 (10 ID 단위) : 3,000 엔
- ※ 첨부파일 10GB까지 무료

당사는 앞으로도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의 선진적인 대처를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고객의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백오피스로 경영 문제를 해결하고, 인력이나 자금 등의 리소스가 부족하기 쉬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가겠습니다.

■ 전자장부보존법 개정에 대하여

원격근무나 업무 프로세스의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가 사회적으로 추진되면서 청구서와 영수증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2021년도 세제 개정에 따른 전자장부보존법 개정으로 '스캔자료 보존 요건 완화'와 '전자거래 데이터 전자보존 의무화'가 새로이 시행됩니다.

'스캔자료 보존 요건 완화'에는 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이 철폐되고 타임스탬프 요건 등이 완화되어 경비정산의 페이퍼리스화와 업무 효율화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전자거래 데이터 전자보존 의무화'에 따라 메일 혹은 클라우드 서비스로 수령하던

청구서나 영수증과 같은 전자거래 데이터가 지금까지 인정되던 출력 서면에 의한 보존조치가 폐지되는 대신, 모든 기업이 일정한 요건을 갖춰 전자 데이터로 보존하도록 의무화됩니다.

「2022년 세제개정 대강」에는 「전자거래정보와 관련된 전자적 기록 보존제도」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과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결국 모든 기업이 전자보존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전자장부보존법의 주요 개정 포인트 >

▽스캔자료 보존 요건 완화

-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철폐
- 타임스탬프 요건이나 검색 요건의 완화
- 적정사무 처리 요건의 폐지
- 부정이 발생하는 경우의 증가산세 창설

▽전자거래 데이터 전자보존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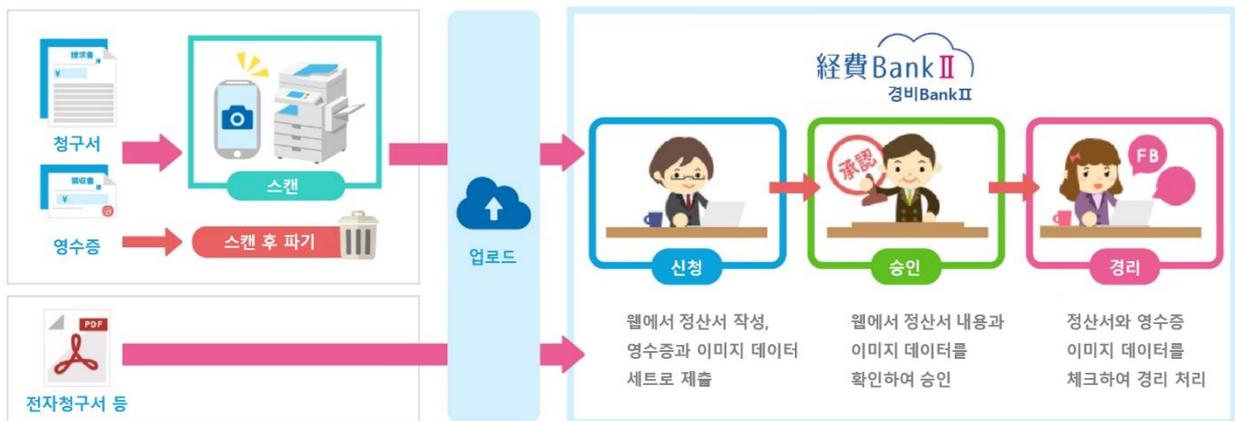
- 검색기능의 확보 요건 재검토
- 타임스탬프 부여나 데이터 삭제 시 기록이 남는 것과 같은 보존 요건 재검토

■ 클라우드 경비정산 시스템 「경비Bank II」 개요

「경비Bank II」는 웹브라우저에서 이용 가능한 클라우드 경비정산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에서 언제 어디서든 신청·승인할 수 있으며, 거래처에 대한 지불의뢰와 지불예정표에 의한 지불관리, 경비집계에 의한 경비분석, 계좌이체 데이터 및 회계 분개데이터 작성 기능을 탑재하여 경리업무 효율화를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서 등의 커스터마이징이나 유연한 승인 워크플로우 설정으로 기업 형태에 맞는 경비정산 업무 시스템화가 가능하여 중소기업은 물론 천명 이상의 대기업까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많은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비Bank II」의 상세는 홈페이지(<https://kb2.sbi-bs.co.jp/>)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비Bank II」 이용 시의 전자장부보존법 운용 이미지 >



■ 당사 개요

- 회사명 : SBI 비즈니스솔루션즈 주식회사
- 소재지 : 도쿄도 미나토구 롯폰기 1-6-1 이즈미가든타워
- 설 립 : 1989년 9월
- 대표자 : 대표이사 사장 나츠카와 마사키
- 자본금 : 1 억엔
- 사업내용 : 백오피스 지원 서비스 제공
- URL : <http://www.sbi-bs.co.jp>

【본 건에 관한 문의】

SBI FinTech Solutions 주식회사 TEL: 02-2038-2791 Email: ir@sbi-finsol.co.jp